

고용 서프라이즈에 긴축 경계 재부상, 3대지수 부진한 한편 반도체 강세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고용 호조에 금리 경계감 ↑, 오픈 AI 발 반도체주는 훈풍

- 미 증시는 DOW -0.51%, S&P500 -0.38%, NASDAQ -0.29% 하락. 기술주, 산업재 강세, 임의소비재, 통신서비스, 헬스케어 등 약세
- 비농업 고용보고서 호조가 금리 상승 가능성 높이며 증시 압박 한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3.4% 강세. 오픈 AI 가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GPT-6 아스트라의 AI 에이전트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연산 및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따른 GPU 뿐만 아니라 HBM·DRAM·NAND 등 수요 확대 기대

비농업 고용보고서 발표 후 금리 인상 우려 다시 확대

- 8월 비농업 고용 +16.2만명, 전월·컨센 약 3배 수준 대폭 상회, 이전치도 6월 +2만→+3.1만명, 7월 -2.3만→+2.1만명으로 상향 조정. 업종별 음식점·주점 +5.9만명, 지방정부교육 +4.2만명 등이 상승 주도, 제조업 고용도 +1.6만명 증가, 반면 정보산업 -2.3만명 감소. 8월 실업률 4.1% 전월·컨센 부합. 노동참가율은 61.6%로 상승
- 해맥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를 넘고 노동시장은 나의 최대 고용추정치 부근에 있을만큼 안정적이라 진단.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매파적 견해 표명
- 국채금리 상승 10Y 4.784%(+2.1bp) 2Y 4.379%(+4.7bp). CME FedWatch 9월 인상확률 59.4%로 다시 우위

연준에 인하 압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CPI 발표 앞두고 중동 상황 여전히 불안

-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중인 국가들과의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 기자 인터뷰에서 미국 금리는 1%나 0.5% 수준이어야 한다고 주장
- 이번주 11일 8월 CPI 발표 내용에 따라 금리 방향이 좌우될 전망. 한편, 중동 정세 불안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확대되며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압력 지속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TSLA	테슬라	-5.9%	무인 로보택시 사이버캡 공개 행사 후 실망 매물 출회되며 주가 하락. 사이버캡 행사가 라이브 스트리밍 없이 진행되고, 세부 정보(도입 일정, 규모, 수익성)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에 주가 하락. 더욱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이버캡의 안전기준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전해지며 하방 압력 가중
PL	플래닛랩스	-1.3%	실적발표. 국방·정보 매출 급증(+93%YoY) 및 수주 잔고 증가(\$815M, +11%YoY)에 힘입어 2Q 실적 서프라이즈 및 연간 가이드선 상향. 다만 조기 매출 인식에 따른 3Q 가이드선 부진으로 주가 약세. 한편 차세대 위성·AI 투자 영향으로 GPM이 전년비 소폭 둔화된 가운데, 주당 \$31.95의 ATM 증자로 \$120M을 조달(총 유동성 \$865M)하며 수반된 주식 희석 요인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IOT	삼사라	+3.7%	실적발표. 2Q 호실적 발표 및 연간 가이드선 상향 소식에 주가 상승. 연간반복매출(ARR) +30%YoY. 특히 대형 고객(연간 \$1B 이상 지출)이 분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42곳 순증. 초대형 엔터프라이즈 고객(연간 \$10B 이상 지출)도 20곳 신규 유입되며 질적 성장을 견인. 호실적에 주요 IB들 일제히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상향
ZS	지스케일러	-4.5%	실적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가이드선 둔화 및 구조조정 여파로 주가 약세. 순손실 기조 지속된 가운데, FY27 연간 매출 및 ARR 성장 둔화 전망치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또한 AI 중심 역량 집중을 위한 약 3% 인력 감원 계획 발표. 한편 실적 발표 후, 대다수의 주요 IB들은 투자이견 '매수' 유지. 스티븐스, 니덤 등 목표주가 상향
ADBE	어도비	-6.7%	CEO 변동계획 공시 이후 주가 하락. 신임 CEO로 아널 차크라바티 내부 승진 임명 발표에 시장 실망감 유입. 18년간 재임한 산타누 나라옌 CEO의 12월 퇴임에 따라 외부 영입을 통한 AI 체질 개선을 기대했던 시장의 실망 매물 출회